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일본 태양광사업의 새로운 모델, '증권화 구조'

2012년부터 시행된 고정매수가격제도(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고정기간 동안 고정가격으로 매수하는 제도)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증권화'라는 새로운 구조를 통해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에는 오카야마현의 세토나이시에 25만 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증권화를 통한 투자를 받아 건설에 착수하였고, 올해 5월에는 마더스 상장기업인 인터액션이 증권화를 통하여 가고시마에 1.5메가와트 규모인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펀드가 일본 내에서 다수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쓰이물산과 동경해상AM투자신탁은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일본의 기업연금 등으로부터 200억엔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사업의 증권화는, 종래 일본의 부동산 증권화에 사용되었던 비즈니스 구조를 활용하는 것인데, 투자자산이 부동산이 아닌 태양광발전소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용되는 증권화 구조는 투자자의 에퀴티를 최소화하고, 대상자산을 담보로 한 논리코스 론(non-recoures loan)을 조달함으로써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부각되고 있습니다.